

# 國際環境變化와 韓半島 統一展望

---

李 相 禹

서강대 교수

---

## 머 리 말

20세기 최대의 드라마는 역시 레닌주의의 등장과 소멸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1917년 당시 최대의 제국러시아에 볼셰비키혁명을 통하여 출현한 레닌주의정권은 세계제2차대전종결과정에서 그 세를 동유유럽으로 넓혔으며 중국혁명을 유발시켰고 다시 월맹, 쿠바, 짐바브웨이등 제3세계국가에 유사정권이 출현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레닌주의는 불과 반세기동안에 전세계인구와 영역의 3분의1 이상을 장악하는 성장세를 보였었다. 그렇게 강세를 보이던 레닌주의가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완전한 사양길로 들어서고 있다. 종주국인 소련자체가 체제개혁을 선언하고 나섰는가하면 최대의 레닌주의국가인 중국이 레닌주의를 포기하고 나섰다. 나아가서 폴란드에는 비공산정권마저 출현하였다.

공산체제의 붕괴로 국가간관계에서 이념의 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이념

\* 제주신문사 통일문제연구소가 89년 9월 29일 주최한 세미나 발표요지

의 벽의 제거로 냉전체제는 새로운 화해체제로 대체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로 한반도 주변에도 새로운 협조의 기운이 형성되고 있다.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냉전분위기가 완화되면서 통일문제에도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시대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한반도평화와 통일문제는 새 시대 환경에서는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시대환경변화는 문제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강연에서는 새 시대환경이 가져오는 국제정세변화의 큰 흐름을 해설하고 이런 변화속에서 남북통일문제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 1. 새 시대 환경의 이해

흔히 오늘의 정세를 혼란으로 표현한다. 과거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과거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양적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질적변화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려면 우리의 상식자체를 고쳐야 한다. 즉 우리가 지녀왔던 사고의 범형(paradigm)을 고쳐야 한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큰 흐름을 꼽는다면 어떤것이 있을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의 흐름으로 우선 소련을 비롯한 공산체제의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형성되었던 국제 냉전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개편시키고 있는 데탕트의 흐름은 바로 공산체제의 변화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국제질서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큰 흐름은 「군사력지배시대」로부터 「경제력지배시대」로의 변전과 이에 따르는 국제관계의 「게임규칙」변화이다. 한때 강대국들은 함포와 해병대로 약소국을 지배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력을 외교수단으로 쓰기 어렵게 되었다. 대신 경제적 시혜능력이 주요 외교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제관계의 게임규칙이 바뀌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제정치를 설명

해주는 기본틀이던 「세력균형」 체제가 「이익균형」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동맹관계도 이에따라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내정치변화와 관련한 가장 큰 흐름은 「민주화」라고 부르는 참여의 폭발이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정치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자각이 겹쳐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요구로 민주화의 열기가 분출하고 있다. 이 현상은 우리사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 현상으로 보편화하고 있다. 이제 대외정책은 국민의 의사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펼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꼽은 세가지의 역사적 흐름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오늘 우리가 신문을 통하여 접하는 수많은 사건과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21세기로 번져가면서 출현할 새 질서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밀흐름을 이해 하여야 어렵 짐작해 볼 수 있다.

## 2. 공산체제의 변화

지난 한세기동안 온 세계에 충격을 주어왔던 공산주의이데올로기(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레닌주의)와 이 이념의 실천을 내세우고 출현했던 공산정치체제는 금세기와 더불어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쇠퇴해 가고 있다. 공산중주국인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라 부르는 체제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가장 큰 공산국가인 중국이 자기자신을 시도하고 있다. 동구제국도 빠른속도로 공산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미 폴란드에는 비공산정권이 출현했으며, 헝가리는 중립을 모색하고 있다.

공산주의 즉 레닌주의는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의 결합으로 출현한 혁명이데올로기이다. 개인이 향유하여야할 행복의 조건을 집단적으로 성취하자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는 다른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현실 사회의 부조리극복을 묘방하고 내세운 저항이데올로기였다. 산업혁명직후 자본주의 체제속에서 급속히 진행되던 서구의 산업화가 가져온 부작용의 하나이던 소유

의 불균형을 시정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사회주의였으며 이러한 사회주의 이념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유산계급과의 현실투쟁의 실효성을 앞세워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론이라는 전체주의와 결합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혁명이데올로기가 된 것이다.

20세기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자적조건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소유의 혁명」 시대였다. 기술을 개발하여 부의 생산을 높이고 관리체제를 발전시켜 부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데 최대의 관심을 쏟았던 한 세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주의이념은 부의 고른 분배라는 생산관계 개선에는 직접간접으로 큰 기여를 하였다. 오늘의 자본주의가 무제한의 우승열패원리의 원형에 많은 사회성이 가미된 변형으로 변모하게 되는데는 사회주의이론의 도전이 큰 자극제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예이다.

사회주의의 한계는 생산력 증대에서 부정적 기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물질적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더구나 사회주의가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까지 정치적 통제가 가해지는 전체주의와 결합되었을때는 생산력 증대에서 노출되는 약점이 더욱 강조된다.

공산주의는 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혁명을 통하여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커졌다. 소련, 중국, 북한 등은 모두 산업화이전단계에서 공산체제를 도입한 경우인데 부의 고른분배를 위한 생산관계 개선보다 부의 생산자재가 더 큰 과제이던 사회였으므로 공산체제는 기여보다 피해를 더 많이 가져온 셈이다.

공산체제에 대한 비난은 사회주의적 측면에서 보다 전체주의적 측면에서 더욱 강하게 일어났었다. 계급독재와 전제정의 횡포는 인간이 오랜역사상 가져보았던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더한 죄악을 인류사회에 끼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련의 경우, 공산혁명과정과 그 체제유지과정에서 어느 전쟁보다 더한 6천2백만의 생명을 희생시켰는데 이러한 횡포는 무슨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죄악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이념은 이미 산업화단계를 지난 사회에서는 전혀 매력을 잃고 있다. 삶의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소유의 혁명이 아닌 「존재의 혁명」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사람보다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공산주의가 담당할 역할자체가 소멸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결핍의 시대」의 이념이었는데 앞으로 「충족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공산혁명을 이룬 사회에서도 공산주의 이념은 역할상실을 하고 있다. 더 이상 계급이 존재하지 않게된 사회에서 「무계급의 이상향」은 매력을 가질 수가 없고. 오히려 저생산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련과 중국에서처럼 배척받고 있다.

발전속도가 한발 늦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소유의 혁명이 일차적인 시대적 과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젊은 이상주의자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다. 오늘 한국사회가 겪고있는 공산주의 열병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진행방향이다. 앞서고 뒤서고 하고는 있지만, 온 세계는 현재의 선진국이 들어서고 있는 새로운 「산업화이후사회」(post-industrialized society)로 옮겨가게 될 것이며 21세기에는 모두가 「존재의 혁명」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세기에 빛을 보았던 공산주의는 이 세기와 함께 그 역사적 존재 의의를 마감하고 쇠퇴할 것이다. 결핍시대의 이념은 충족시대에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논리적 귀결이다.

### 3. 새로운 다원적 데탕트질서

고르바초프는 1985년 소련 공산당서기장에 취임한 이후 과감한 개혁정치를 펴고 있다.

중공에서는 1978년이래 등소평의 개혁정치가 실시되고 있다. 중공은 중국

의 현발전단계가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생산관계재조정을 필요로 할만큼 산업화된 단계가 아니며 생산력 증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하는 산업화이전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실천단계에 못미친 「사회주의초급단계」이므로 생산력증대를 위해 과감한 대서방협조,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사기업허용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련과 중공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산체제개혁은 이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인식한 자기변신조처라고 할 수 있다. 사내적으로는 국민들의 보dana은 삶을 갈구하는 욕망을 수용하며 대외적으로는 무모한 그리고 승산없는 대서방경쟁을 포기하는 정책을 통하여 21세기의 새 질서에 순응하겠다는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대서방 긴장완화정책은 기존의 국제정치질서를 뿌리부터 뒤집어 놓고 있다. 소련은 그동안 냉전시대를 통하여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었다. 대미군사우위만 확보되면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그때는 세계적차원의 사회주의질서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래서 경제건설을 희생하면서 오늘의 소련군사력,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갖추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군사력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어가면서 소련은 방침을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소련은 일본의 YEN이 소련의 ICBM보다 훨씬 더 유효한 외교수단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대서방군축에 앞장서서 나가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대서방협력관계증진에 노력을 집중하게 된 것이다.

공산국들의 이러한 대외정책변화는 일차적으로 비사회주의국가들의 접근을 막아 오던 이념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공국가인 한국이 북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산국들이 냉전종식조처는 다원적 데망뜨 질서를 형성해나가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대미데망뜨, 중소화해, 동서유럽의 협조관계구축, 동남아사태의 해결, 아프가니스탄철폐군등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세계적 데망뜨는 정경분리를 국가간 관계설정의 새 규칙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서로 대립되는 정치

문제는 유보하고 협조가능한 경제교류, 문화교류 등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별 관계의 분리추진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새 국제질서는 한국의 외부환경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긍정적 인 면에서는 그동안 막혀있던 대공산권 진출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 남북한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정치통일을 제2단계 목표로 미루고 실질적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한 민족공동체통일론」의 전개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는 점등을 우선 꼽아 볼 수 있으며, 부정적인 면에서는 한미관계가 안보협력영역을 제외하고 경쟁관계로 발전되어가게 되었다는 점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질서의 변환은 하나의 주어진 흐름이어서 우리가 이를 고쳐나갈 수는 없다. 우리가 오직 이에 적응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현명하게 적응하면 이 변환을 우리는 한국발전의 호기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적응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위기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다.

#### 4. 새 통일정책의 방향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룩하려면 두가지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우선 우리의 통일외지가 확고해야 하고 다음으로 북한이 우리와 통일을 진지하게 논의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통일외지는 합리적이고도 진지한 통일정책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될 때 확고해진다. 북한의 자세변화는 북한사회내에서 인민들의 자기변신요구가 분출할 때에도 일어날 수 있고 외부의 강한 자극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변화는 대세의 흐름속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통일협상이 진전될 수 없었던 것은 남북통일의 기본접근에 관련된 핵심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시대착오적인 경직자세를 고수해 왔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은 평화가 이루어진

바탕에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일이 아무리 민족적 염원이라 하더라도 민족을 죽이면서 이루어서도 안되고 또한 통일이 민족을 죽이는 조건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뜻에서 우리는 평화를 통일의 선행조건임과 동시에 통일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통일을 평화에 앞세우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인민계급의 적을 타도하기 위한 폭력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통일의 목표자체도 인민계급의 해방, 인민의 다른계급에 대한 독재라는 비평화상태에 두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견해차이로 하나의 정부를 세우는데 합의하기 어려운 동안에는 분단의 고통을 줄이고 분단상태를 덜 고통스럽게 그리고 훗날의 통일에 더 도움이 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하여 북한은 통일에 이르는 중간과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통일 아니면 분단이라는 양극의 논리에 매어있다.

이러한 북한의 강경자세는 그들이 「힘에 의한 통일」을 믿는데서 나온것이다. 동원체제의 강점을 살려 집중적으로 힘을 키우면 남한정권을 타도할 힘을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한데서 그러한 오만한 자세를 갖게된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다. 동원체제로서는 도저히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남한사회의 경제역량을 따를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또한 반전체주의민주화의 욕구는 교육받은 인민의 당연한 주장으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어 북한의 레닌주의체제자체를 위협하기 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련, 중공 및 동구의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한국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흐름속에서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던 북한의 뜻도 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은 대남자세를 고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한국정부는 이번에 새로운 통일정책대강을 발표했다. 「한민족공동체통일안」이라 부르는 새 통일방안은 현실에서 출발하는 “조용하고 착실한” 통일정책이다. 온 한겨레가 자유, 민주, 고른복지를 누리는 단일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 먼날까지 가는 과정에서



분단의 고통을 줄이고 분단사태를 좀 더 지내기 편한 상태로 고치는 데 일차적 노력을 기울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단관리과정을 관리할 중간의 과도조치로 「남북연합」 체계를 상정하고 있다. 헤어진 가족을 서로 만나게 해주고 서로 남북으로 왕래하게 하며, 경제교류를 늘이고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남북이 고르게 발전하게 만들어 후에 총선을 통하여 정치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물론 현재의 전투적 자세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한 북한은 새로운 한국정부 통일방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을 내다본다면 북한도 결국 이 길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세에 따라 순리대로 나아갈 때 얻어질 수 있을 뿐이다.

통일은 누가 가져다 줄 선물이 아니다. 우리가 이룩해야 한다. 통일은 보챌다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침착하게 때를 기다려야 한다. 정치통일을 미루고, 꾸준히 민족통일작업을 펴나가는 서독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 통일은 “이 민족 살리는 통일”이어야 한다. 「한민족공동체통일안」은 이 생각을 담아 내놓은 것이다.